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 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가인의 후예들의 회개” (Repentance of Cain's Descendants)

■ 창세기 4:16-24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최초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열납 되지 못했으며,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범한 자가 되었고, 그 이후 가인은 폭력과 파괴의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가인을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요일3:12). 또한 성경은 아담 없는 짐승 같이 타락한 본능으로 행하는 자들을 일컬어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유 1:10-11). 마찬가지로 오슬 “분노”라는 측면에서 우리들의 모습에는 가인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피보다 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만 있다면, 죄 용서함을 받아, 회복과 부흥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1. 우리에게 있는 시기과 질투의 마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자기의 것은 받아주지 않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가인의 살인사건은 사실 사소해 보이는 시기과 질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 왕은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그 질투심으로 인해 사울 왕은 자신의 소종환 일생을 다윗을 추격하는 헛된 일로 허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과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고 마음에 묻어두고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은 빨리 빨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자 합니다.

2. 우리에게 있는 분노의 마음

사소해 보이는 시기과 질투는 곧 분노로 변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창4:5). 분노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인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창4:8)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였지만 약삭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모세가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민20:12). 오늘 우리가 때때로 나타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면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졌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의 살인행위는 사소해 보이는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분노함으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받았어야 했던 벌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은 사랑하는 가족을 순간의 분노로 잃게 되었으며, 땅에서 저주를 받아 궁핍하고 척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망 다니며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인의 폭력적인 성향은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그 후손들 중에 가인을 능가하는 폭력과 살인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창4:23-24).

3.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마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창4:10) 아벨은 그냥 죽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피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제 형님이 나를 너무도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로 상처를 준 수많은 영혼들아, 우리의 분노함으로 인격적인 살인을 저지른 수많은 영혼들아 “하나님! 누구누구가 나에게 어떻게 깊은 상처를 줘서 내가 인격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심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새 연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히12:24)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씻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맺는 말

오늘 우리는 가인의 길을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층
주 일 예 배	I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III,IV층
		교회학교 모임	오전 10시	
	II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부	경배와찬양	오후 1시 30분	
		청 년 예 배	오후 2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II,III,IV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II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디아스포라 부	오후 1시	903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Discipleship Program	오후 12시40분	101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사 람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 호	에바다 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 호		성경공부	오후 2사-3시 603 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 호	새 가 족 부	1부	오전 10시
고 등 부	오전 10시	6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602 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 호		3부	오후 3시20분
청년 2부	오후 3시20분	601 호		학습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사40분 602 호
청년 1부	오후 3시20분	603 호		세례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사40분 607 호
대학부 토요집회	오후 3시30분	5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청년 2부 토요집회	오전 9시	601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청년 1부 토요집회	오전 10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신혼가정부	오후 3시20분	802 호	신앙강좌 1,2부	오후 12시40분	901 / 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 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영어목회담당목사 Steven Martinolich 찬양담당목사 오세광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이종진 노정호 교육전도사 이신우 박대형 최언에 허승원 협동 목사 김영환 김철홍		선 교 사 강아름·주한나, 이시라, 권요셉·조애스터,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래, 박진영·김마성(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정상찬·홍성임(필리핀), 서광준·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서·현해욱(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복령·오정녀(케냐) 김태식, 윤왕모,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선희(생원선교) Thau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Ngiang Hi-Samuel Kei Sum(미얀마)	
---	--	---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오세광 목사	오세광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박광일 목사	김영준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이영기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부름 Call to Worship	시18: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부(십계명)... 다 합 께
	2부:13(시23편)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43(57) ...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 4:16-2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헌금, 정화헌금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그리스도의 푸른 문화를 꿈꾸며"... 박노철 목사
	(Dreaming of Christ's Culture)
* 찬 송 Hymn	543(342)...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 박노철 목사 · 설교 : 박진영 선교사
묵 도	다 합 께
성 시	시 66:1-2... 인 도 자
찬 송	428(488) ... 다 합 께
기 도	양득춘 집사
찬 송	419(478) ... 다 합 께
성 경	로 10:13-15... 인 도 자
성경통독시상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교회, 방글라데시의 소망"... 설 교 자
* 찬 송	210(245) ... 다 합 께
* 축 도	인 도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부: 김영정 권사, II부: 감숙연 권사
성 경	마 6:16-18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금식기도가 추해질 때"... 설 교 자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이경희 · 홍해란 · 김양언
설 교	박노철, 박진아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20분	본당 2층
설 교	황광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부	가브리엘	십자가 군병돌아	V. D. Thompson	백경화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II부	할렐루야	주 영광 위해	Mark Patterson	고성진	김현정1	김양언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축복 더한 축복	Vicky T. Courtney	류충기	최수환	양경실	윤준현1
찬양예배	베들레헴	순종하는 삶	박지영	유태왕	김정희	박수강	
영어예배	예루살렘	If we truly believe	Don Besig	심상희		이승민1	
수요 I부	호 산 나	주님의 기도	정성원	서희숙	김윤지2	홍해란	
수요 II부	시 온	왕계 찬양합시다	C. Kirkland	박태경	김진형	박승기	

(헌금송)

I부	고 등 부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W. H. Doane	최영은		박승기	
II부	그레이트셴드벤	승리의 주 예수	Bill Ingram	송재일			
III부	아멘관현악단	거룩하신 하나님	Henry Smith	임범창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김준희	15-2	마리아	박찬희/백나희	김윤희	3교구	대학부	본인	정준혁	1교구	중등부	오세복/오형석
정승일	13-13	안드레	사랑팀	김애란	10교구	예배다부	전영훈	문현	4교구	중등부	송경민
조경숙	13-13	루디아	사랑팀	이미진	10교구	예배다부	김애란	황호진	3교구	중등부	오세복/오형석
신재익	11교구	청년1부	신규섭,경경희,신은미	박경훈	13교구	대학부	자비팀	강해원	13교구	중등부	사랑팀
이정규	9교구	청년2부	장명순	박재석	16교구	대학부	인내팀	이강석	16교구	중등부	본인
이지혜	14교구	청년2부	안내팀	김성환	9-9	대학부	문준영	경소윤	교육1국	초등부	사랑팀

ㄱ 앞면에서 계속

8.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장소: 302-306호 ·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9.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10. 의료 상담 / 의정부 열랑교회 봉사활동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0-3688-9123

◆ 결 혼

1. 서한상 군(4교구 서경학 집사 이명숙 권사의 차남)과 우소영 양(우성 집사 박은희 권사의 장녀/타교회) / 30일(토) 오후4시 밀알학교 신관2층 도산홀(3호선 일원역 7번출구 / 3411-4662)

◆ 장례

- 1.故 홍지순 성도(15교구 김명숙 집사 모친 임항빈 성도 장모) / 22일(금) 별세

바울의 사랑과 소원

일사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을 자랑치 않고 사도 바울은 영원한 진리를 자랑했다. "오직 나의 나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친 바울은 배은망덕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자랑했다.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피조물된 우리와 구별되신 창조주로서 완전하신 분임을 자랑하였다. 또한 약속도 맹세도 결심도 시공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진실하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자랑한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성도가 되기를 바랐다. 또한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로서 그와 맺은 언약대로 교회를 자랑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랐다.

이처럼 우리의 자랑과 소원도 하나님과 그의 일에 연관되어지기를 바란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강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절 약

방울 사용후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으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